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 (保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1.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3. 10

한국YWCA

이달의 생각

우리들의 한국YWCA에 여성을 위한 희망이 있다

이달의 현장 ①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

이달의 현장 ②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방사능 안전허용 기준치 하향조정 촉구 캠페인

오늘의 여성

가정폭력과 여성의 안전



싱그러움으로 가득했던 숲이 옷을 갈아입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녹색의 숲이 자신 안에 깊이 감춰두었던 저마다의 고운 빛깔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무화과 잎사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튼튼한 가죽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나를 벗고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한여름의 수고를 뒤로하고 말없이 떠나는 잎사귀들을 하나님이 곱디고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듯이 하나님 품에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예수님' 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이 가을엔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사진·글 / 최 병 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_ 우리들의 한국YWCA에 여성을 위한 희망이 있다 | 원영희
- 05 월레아침기도회 _ 생명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 장 상
- 06 이달의 현장 ① _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
- 08 이달의 현장 ② _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방사능 안전허용 기준치
하향조정 촉구 캠페인 | 광주, 안양, 하남, 연합회
- 10 이달의 현장 ③ _ 제4차 YWCA 생명포럼
- 12 생명 씨앗 _ 지역순환사회를 생각한다 | 차흥도
- 14 생명 이야기 _ '우월한 생명' 이란 무엇인가 | 이윤숙
- 16 평화의 여정 _ 시리아 내전이 평범한 한 가족에게 남긴 것 | 김영미
- 18 감동이 있는 나눔 _ 저금통 동전 모아서 북한 친구들 돕고 싶어요
| 청주YWC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 18 YWCA PR기자단 _ 청주YWCA 길 위의 평화학교 | 이슬이
- 20 돌봄협동조합 _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할 때 | 배정미
- 22 오늘의 여성 _ 가정폭력과 여성의 안전 | 이은숙
- 24 YWCA와 사회 _ YWCA 생명·돌봄 | 국민일보 9월 기사 모음
- 26 키다리 _ 학교공간바꾸기에 이어 꿈의 스토리를 열다 | 김수연
- 28 에큐메니칼 운동과 YWCA _ 정의·평화의 길 위의 청년 순례자 | 설윤석
- 30 성명서 _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과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 31 이달의 인물 _ 전주YWCA 장애인 선생 | 김은진
- 32 연합회 소식
- 34 회원YWCA 소식
- 43 문화가 산책 _ 함께 읽고 싶은 책



표지이야기

YWCA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에 함께 한 청주Y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한 '서부나눔파티'를 열었습니다. '나눔'의 뜻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북한 친구들과도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YWCA에 여성을 위한 희망이 있다

글 |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 세계YWCA 이사, 성균관대 번역학과 교수)




YWCA 91년. YWCA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Y 없는 세상의 여성 모습은 전통의 틀에 갇혀 자기 계발의 기쁨을 모른 채 사는 모습이다. 딸을 낳으면 그 딸 역시 엄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수많은 모양의 차별과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사는 여성의 모습이다.

다행히 YWCA는 지난 91년간 한국 땅에 실존했다. 여성들에게는 불평등한 삶, 암울한 미래밖에 얘기해 줄 것이 없는 세상을 변화시킨 YWCA.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이끈 YWCA. 그리고 일찍부터 이를 깨달은 여성들이 모여 91년을 이끌어 온 YWCA다.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외친 우리는 여성들의 법적인 위치를 찾으려 노력했고, 언제나 우리들 스스로 배우는 위치로 이끌어내, 더 밝은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더욱 열심히 새로운 많은 정보를 익힐 수 있었다.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했고, 서로 나누고 돌보기를 우리들을 넘어 이웃, 그리고 이웃의 환경에까지 확장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실제로 기쁨을 주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YWCA에 오면 마침내 우리 여성들은 웃을 수 있었다. 따라서 만일 Y가 없었다면, 1960년대,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둥그렇게 둘러서서 포크댄스를 하며 웃을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훌륭한 여성 교육기관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힘세고 거친 청년 남자 학생들 틈에서 지도력을 키울 기회도 없었을 것

이다. 결혼하면 가사노동을 그대로 이어가며 집안에만 있어야 했을 것이고, 폭력인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외도하는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YWCA는 나아가 세계 여성들의 문제들까지 끌어안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여성, 젊은 여성, 그리고 소녀들에 가해지는 폭력 추방을 위한 UN1325 실천 주창운동의 구체화, 그리고 베이징 선언 이후 여성 활동에 장애 요인 철폐 등의 숙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폭력과 HIV, AIDS의 최다 희생자인 빈곤 국가 여성들과 대화하고 도움 길을 찾고, 조혼, 여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낯선 문화권의 여성폭력에도 민감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세상에서는 어렵게만 보이는 우리나라 통일의 문제,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 살리기를 세대 간, 국가 간에 열어놓고 대화하며,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YWCA다.

우리는 선배들이 밝혀준 정의와 평화 사랑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시대의 선각자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불의의 힘에 주저앉지 않는 든든한 후배들이어야겠다는 다짐이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전을 외치며 일어서는 YWCA가 한국 땅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지난 91년이란 세월은 진정,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YWCA의 지속발전가능성의 은유이며 실체이다. 

생명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글 | 장상 목사 (전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마태복음 6:9~13

한국역사 장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셨음을 보게 된다. 1884-1885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도 해방이 된 것도 그렇다. 또한 이번 제10차 WCC 부산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WCC 총회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자 선물이다. 이를 통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개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힘을 주셔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WCC 총회는 1948년에 시작되었으나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A.D 49년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출발점이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크리스천과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크리스천이 화해를 하지 못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둘이 약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코이노니아’의 악수를 하게 된다. 이게 최초의 예루살렘 사도회의고 WCC의 원조다. A.D 49년 이후 1900년 만에 WCC가 창설이 되고 6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성장에 여성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성들, YWCA 회원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해본다.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서

는 우리의 경험이 그 메시지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문화에 익숙해져있다. 이번 WCC 부산총회의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다. 그 생명의 하나님과 여성들과의 관계는 밀접하다. 생명창조는 여성을 통해 지속되어왔고 여성은 ‘살림’의 전문가다. 이번 총회 주제가 여성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에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후반부는 인간 공동체와의 수평적 관계가 드러난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다. 즉, ‘생명의 뜻’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우리를 도구로 쓰소서 하는 기도다.

‘생명의 뜻’ 이 의미하는 것은 정의를 뜻하는 ‘밥상 공동체’, 평화를 뜻하는 ‘화해 공동체’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에서 생명의 양식을 내가 아닌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즉 생명의 양식은 공동체에 주어진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정의고 ‘일용할 양식’으로써 쌓아두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살림’꾼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한다. 이것은 화해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인간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 이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화해가 필요하다. 그 화해는 인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용서가 이루어진다. 손을 내미는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명의 도구, 살리는 전문가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YWCA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살림’꾼들의 단체다. 살리는 전문가의 단체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밥상 공동체, 화해 공동체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요청하신다. 

‘탈핵운동’을 2014년도 주력 과제로


지난 2월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전국대회 기능을 총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사)한국YWCA연합회 정관을 개정하였다. (사)한국YWCA연합회는 9월 5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열리는 첫 총회로 회원YWCA 대표수가 80여명 증가하여 회원YWCA 대표 111명, 연합회 직무상 대표 29명 등 총 140명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2014~2015년 한국YWCA 정책을 채택했다.

이날 주제강연을 겸한 개회예배 설교는 박경미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가 맡아 ‘죄는 어디에서 오는가’ (요한복음 9장 41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박 교수는 ‘핵 발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 핵은 죄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오만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핵무기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을 실행한 과학자들은 과학적 진보와 인간의 지식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주장하고 거기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죄다. 이러한 ‘과학적 낙관주의는 미신’이며 따라서 ‘핵’의 사용은 미신적 행위이다.”라고 일갈하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겸손해야 하며, 지역과 공동체의 성격이 우리 행동의 기준과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4~2015년 한국YWCA 정책 채택에 앞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를 주제로 ‘평화통일, 대안교육, 탈핵, 성 인지, 여성폭력 예방, 돌봄노동권 확보’의 6대 영역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참가자들은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분과토론을 통해 2014년 전국주력사업 제안, 회원Y와 지역위원회가 특화

하여 진행할 수 있는 운동과제 등을 토의하였다. 분과 토의 후 진행된 안건 토의를 통해 대표들은 제안대로 6대 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대안교육’ 영역은 ‘대안교육과 청소년운동 활성화’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014년 주력운동으로 ‘탈핵운동’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전국 공동 사업으로 ‘탈핵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방사능 기준치 하향 조정 운동,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역조례 제정 운동,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 촉구 캠페인, 에너지 절약 사업, 핵발전소 설립 중단 운동, 탈핵 운동가 양성, 에너지 협동조합 구성’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대표들은 ‘방사능 유출 사고 대처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긴급 결의하였다. 또한 세계YWCA,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YWCA와 연대하여 탈핵 운동을 국제 이슈화시키고 지속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2014~2015년 한국YWCA 정책 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시대와 사회의 요청이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한국YWCA는 전국 회원YWCA와 함께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방사능 안전허용 기준치 하향조정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9월에는 광주Y, 안양Y, 하남Y,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본산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8Bq/Kg 수준 이하로 최대한 낮출 것',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YWCA



광주YWCA두레산악회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생명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난 9월 5일 오전 9시에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서 전개하였다. 회원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서명 부탁드립니다"를 외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고,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안전기준치 하향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게 하였다. 수차례 캠페인을 실시하였지만 이번 캠페인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다. "바빠도 서명은 하고 가야죠"하며 어르신, 젊은 엄마, 대학생 할 것 없이 직접 서명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방사능 안전허용 기준치를 꼭 하향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YWCA의 생명운동을 통해 방사능 오

염 감시강화운동을 통해 모든 식품에 방사능 오염도 함유량 표시, 방사능안전기준치를 8Bq/Kg 수준이하로 하향조정 등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광주Y 사회문제 및 소비자상담실위원회 기유정 부장)

안양YWCA



한국YWCA가 진행하는 '방사능 오염먹거리 감시강화 촉구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양YWCA는 9월 11일 정부에 '식품방사능기준치 하향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안양 호계시장은 안양YWCA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없는 호계시장을 선언하고, 이 운동에 동참하였다. 안양YWCA는 호계시장 상인회와 함께 추석에 맞이하여 차례 음식을 준비하려고 나온 시민들에게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식탁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소비

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은 약 1시간 30분 가량이 어졌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안양시 전체 전통시장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시의원의 제안 등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 시민들의 동참에 힘입어 호계시장 상인회와 안양은 공동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의지를 표명하였다.

- 하나, 호계시장 상인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겠다.
- 하나, 호계시장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하나, 우리 소비자들은 지역을 살리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겠다.
- 하나, 우리는 방사능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식품방사능 기준치를 낮출 것을 요구한다.
(안양Y 사회개발부 이규숙 간사)

하남YWCA



하남YWCA는 9월 26일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과 서명 활동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시민들은 우리나라 안전기준치가 일본보다 높다는 것에 무척 놀라며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하남Y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여 유통과정이 분명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시장의 상인들과 같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남Y 김낙주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는 위해 9월 2일 명동의 직장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방사능오염 먹거리 감시강화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방사능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된 자리였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8월 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와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를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7일 부산YWCA의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 및 기준치 하향 조정을 촉구하는 정부 정책제안 기자회견 및 캠페인에 이어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이었다.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이종임 팀장(대한음식문화연구원장)은 "음식물을 통해 방사능 피폭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을 것에는 방사능이 전혀 없어야 하며, 방사능에 있어 안전기준치는 없다"고 시민들의 서명을 호소하였다. 서명을 촉구하는 메가폰의 소리를 듣고 부스로 직접 찾아와 서명을 한 직장인과 중년의 주부들이 많았으며, 우리아이들의 미래 먹거리가 정말로 염려스럽다며 아이와 함께 손잡고 서명한 젊은 엄마들도 많았다. 한국YWCA는 전국 52개 회원YWCA와 함께 전국적으로 식품 방사능 오염도 표시와 기준치 하향 조정 촉구하는 정책 제안 캠페인을 벌인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

일상의 생명감수성 -여성으로서의 나

제4차 YWCA 생명포럼이 9월 26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일상(일상의 생명감수성), 나-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명진숙 국장(연합회 운동2국)이 '에코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주제 강연을 했다. 이어 세계적인 환경운동 및 여성운동을 다룬 주제 영상 <칩코의 여인들> 인도 칩코운동, <그린햄커먼 평화 캠프> 영국 여성 반핵평화운동, <왕가리 마타이, 케냐 그린벨트 운동>, <할매는 궁금하다: 밀양 송저탑 건설 반대 저항운동>을 시청했다. 명진숙 국장의 주제 강연 '여성으로서의 나'를 요약하여 실는다.



인도의 칩코운동

에코페미니즘 등장 배경

개발과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한 반면 생태계 파괴,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그리고 소외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황폐화되고 고갈되는 자연환경과 같이 대다수 여성들 또한 유사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남쪽 국가들에서는 여성,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였고, 북쪽 국가들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코페미니즘이란?

1970년대에 여성과 자연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여성해방론의 이론적, 실천적 확장과정에서 등장한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를 생태적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이해하고 여성의 문제와 생태적 위기의 문제를 연결시키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약자를 돌보는 행위와 그 경험, 보살핌을 통한 자연과 타자에 대한 이해, 관계지향성을 강조한다. 인도의 칩코운동, 케냐의 그린벨트운동, 캐나다의 우라늄처리시설 반대 집단서명운동 등은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윤리적 관심을 반영한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 및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내적으로는 여

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의 국제 또는 세계회의의 과정을 통해 발전했다. 1992년 리우회의의 결과물인 '의제21', 1995년 북경세계회의의 '북경여성 행동강령' 채택에서는 여성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자로 주목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여성들이 주체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에코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여성환경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에코페미니즘의 범주

생활협동조합운동 1980년대 중반부터 유기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거래하는 공동 구매 활동과 소모임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성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가족의 건강이다. 그런데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이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주부들은 살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한다. 자신이 기반한 지점에서 일상의 것을 새롭게 조명하는 가운데 생활영역을 재구성하는 생활정치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활정치란, 기존의 공사업역의 이분법 속에서 이루어진 공적 영역


중심의 정치 개념을 생활 영역에서 재개념화한 것이다.

여성건강 이제까지 의료영역에서 여성의 몸은 단지 생식력이나 출산력의 대상으로만 고려되었다. 일선 진료현장에서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비만, 폐경기, 골다공증, 호르몬 대체요법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코페미니즘에서 접근하는 여성건강은 여성의 몸과 정신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이제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을 다루는 것'에서 나아가 '무엇이 건강을 만드는가'라는 공동체적인 물음을 던지며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수 있다.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 내 몸의 주인 되기 원래 다이어트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지금은 날씬한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대다수 여성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한 다이어트에 몰입하게 된다. 결국 소비사회에서 몸이 최후의 식민지로 전락할 여지가 높다. 에코페미니즘에서 살피는 아름다움은 서구적 미의 기준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몸으로만 형상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 여성들의 몸은 각각의 존재에게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여된 창조주의 선물이다. 이 선물인 몸을 온전하게 섬기고 받드는 것, 그것이 곧 아름다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생명공학기술, 여성에 대한 위험과 기회 생명공학기술은 치료와 예방, 그리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에 대한 개입이 정당화된다. 하지만 생명공학기술시대에 맞는 생명윤리를 수립하고 이 과정에 다양한 시각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재생산을 기본으로 한 생명공학기술의 특성상 출산할 권리와 능력을 소유한 여성의 입장과 경험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에코페미니즘 입장에서 이해하는 생명공학기술은, 생명공학기술이 줄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초래할 위험에 더 주목한다. 실제로 생명공학기술에 있어 인간은 단지 유기물질, DNA, 원료의 덩어리일 따름이다. 이블린 폭스 켈러는 유기체 생명의 모든 측면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원인자로서의 유전자라는 이미지는 대중과 과학적 사유에 너무 깊이 배어 있어서 그것을 몰아내려면 선한 의도, 근면, 개념 비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 지구적 재해를 포함해 현재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고

려할 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이러한 때에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발전시킨 여성들이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사회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의 지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출발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들이 본래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확인, 확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둘째, 여성과 환경을 억압하는 지배의 논리에 저항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감하는 개인들이 생명의 감수성을 토대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개발의 패러다임을 넘어 '생존의 관점에서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철저하게 던져야 한다. 하 나남 나라에서 온전히 지켜져야 할 그것들에 대해 이제 여성들이, 나로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주제 영상

<칩코의 여인들>

1973년 인도의 테니스라켓 회사에서 물푸레나무들을 벌채해 테니스 라켓 원료로 쓰려고 했다. 마을 여성들은 벌목 대상 나무들을 하나씩 껴안고 "나무를 베려면 나의 등을 먼저 도끼로 찍으라"고 소리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를 계기로 '나무 껴안기'라는 의미를 지닌 칩코 안돌란(Chipko Andolan) 운동이 탄생했다.

<그린햄커먼 평화 캠프>

영국의 미군기지가 있는 그린햄커먼의 핵미사일 배치를 위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평화 캠프'를 세웠다. 그리고 서로서로 손을 잡고 기지 주위 14km를 '인간사슬'로 포위했다. 여성들의 비폭력 저항행동은 유럽 반핵운동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왕가리 마타이, 케냐 그린벨트 운동>

1997년 왕가리 마타이는 '그린벨트 운동 부분'을 창설해 무분별한 벌목이 이뤄지던 케냐에서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펼쳤다. 그녀는 2011년 별세하기까지 4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할매는 궁금하다>

밀양 할머니들은 송저탑 건설을 막기 위해 9년째 매일 산을 오르고 계신다. "우리는 땅에게 보답한 게 없잖아. 자연을 지켜주지라도 해야지. 후손들한테도 도리를 해야지".



지역순환사회를 생각한다

글 | 차흥도 (생명창고, 지역순환사회 전국협의회 대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반핵/탈핵운동이 상당하다. 바람직한 일이다. 세계가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반성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다. 오히려 돈벌이의 기회라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임하는 것 같다.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것이 심히 부끄럽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값싼 전기, 원자력으로 만든 에너지를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99%를 쓰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핵을 주장하며 탈핵을 주장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다.

몇 년 전에 부안 핵폐기장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던 적이 있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던 부안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전기 안 쓰냐? 쓰면서 왜 이러느냐?” 질문이 우리를 당혹케 했다. 그래서 우리끼리 머리를 맞댔다.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 쓰자고!

그래서 그들은 폐식용유를 걷어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경운기, 건조기, 트럭 그리고 보일러에도 쓰고 또 눈에 유채꽃을 심어 그것으로부터도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함께 쓰고 있다. 눈은 이모작을 하고 기름을 짜고 난 유채꽃 찌꺼기들은 눈에 거름으로도 쓰고 있다.

즉, 할 수 있는 한, 지역에서 에너지의 자급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전에서 생산되는 값싼(실제 폐기까지를 계산하면 전혀 싸지 않고 오히려 비싼) 전기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아니 할 수 없다. 즉 에너지의 자급과 순환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돌아보면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만이 지역에서 자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면이 다 그러하다. 자급이 되지 않으니 순환이 될 리가 없다. 오히려 자급은 커녕 지역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혹자는 이야기 한다. 세계화 시대에 웬 지역이냐고? 그래서 생협진영의 주류는 한반도 남쪽을 다 지역으로 설정한다고 한다. 물론 이 남한 땅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대전쯤에선 차로 2-3시간이면 이 나라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렇다고해도 지역이 무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역은 수십, 수백 아니 수천년을 살아오면서 삶의 기본권역으로서 인간발달과 자기실현 그리고 문화의 계승과 창조가 이루어져 왔으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협동하며 자연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인간답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역은 교육과 문화 및 삶의 방식에서 독자성을 지녔으며, 주민이 주인인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치단위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은 교육, 문화, 경제 즉 삶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개성 있는 삶의 현장이며 자연, 경제, 문화의 복합체(통합적 존

재)이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무시되고, 세계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 모든 것이 중앙집중이며 중앙중심이다. 획일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다원화된 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중심이다. 그래서 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 나라는 동맥경화에 허덕이고 있다.

예수는 중앙(예루살렘)을 자기 삶의 무대로 삼지 않으셨다. 유대 팔레스틴 땅에서도 변방인 갈릴리가 그분의 주무대였다. 평생을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나라운동을 펼치셨다. 당시 세계의 변방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는 중앙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역사가 증명한다. 새로운 사상과 운동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나온다.

왜?
지역이 가장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고통이 배어나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그 시대의 고통을 넘어서고자 새로운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이 순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인간의 몸도 그러하다. 우리 몸을 도는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심장이 튼튼하고 해서 피가 제대로 순환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 구석 구석에 있는 실핏줄까지 피가 제대로 돌아야 비로서 건강한 것이다.
우리 사회도 그러하다.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고 한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곳도 지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곳도 지역이다. 이러한 요구는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과제를 갖게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로부터 지역’으로의 전환이고, ‘중앙으로부터 지역’으로, 계속하여 ‘시장으로부터 사람’으로 그리고 ‘경제발전보다는 지속 가능한 상생의 사회’로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 도시와 농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사회, 바로 지역이 순환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경제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는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져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과 평화로는 이어지진 않음을 알고 있다. 오히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갖게 되었다.

경계나 국경의 제약없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강조되면서 지역이나 지역경제는 아무런 의미없는 존재가 되었다. 국제화, 세계화가 진전되고 초국적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독자성은 상실되고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종속적인 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은 인간과 지역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는 자연환경을 파괴하였고, 상품소비와 생활양식의 획일화는 다양한 지역 문화를 쇠퇴시키고 삶의 질을 희생시켜 왔다. 이러한 파괴와 희생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참된 행복과 삶의 질이 연관된 지역의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농(農)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순환사회가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눅17:21)고 하셨다. 즉 하나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는 나라이다. 하나님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이 순환하는 사회, 나눔과 섬김 그리고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나라는 혼자 갈 수 없는 나라이다. 그 나라는 혼자 만들어 갈 수 없는 나라이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는 사회(롬8:28), 이 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지역이 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이길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월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글 | 이윤숙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부활하는 우생학

“제시가 자매, 우월한 유전자 뽀내” “수지에게 우월한 유전자 물려주신 부모” “현빈, 완벽 우월 유전자 입증” ...
언제부터가 인터넷 등을 통해 ‘우월한 유전자’라는 말이 빈번히 등장하게 되었다. 나치가 아리안 민족의 우월한 유전자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유태인과 동성애자, 장애인, 공산주의자 등을 끔찍하게 학살하던 시대에 쓰였던 단어가 그런 무시무시한 폭력성의 이미지를 탈각하고, 이제 일상적으로 별 위화감 없이 매우 친근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로 아름답고 빛나는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 앞에 자주 붙여진 이 말은 단지 닳고 싶은 외모만이 아니라 학벌, 굉장한 경제력에 대한 선망의 표현으로서 이제 더 이상 낯선 표현이 아니다.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지만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 그 무엇, 하지만 끊임없이 실현시키도록 욕망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월한 유전자’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자질과 능력은 태생적으로 동등할 수 없고 후천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대중적 열광감이면서 동시에 유전자에 각인시키고 싶은 만큼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다. 말하자면 나와 너를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우월함’의 가치를 끊임없이 갈구하도록 욕망하도록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 현대판 우생학의 슬로건인 것이다.

단종법과 나치 홀로코스트

백과사전을 보면 우생학(eugenics)이란 ‘인류를 유전학

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들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말하자면 유전학에 대한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근거로 해서 인류를 속아내거나 개량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학문인 것이다.

다윈의 사촌인 영국의 프란시스 골튼에 의해 창시된 우생학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장애아동의 출산을 막기 위해 불임시술을 실시하는 ‘단종법’으로 실현되었고 이는 197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단종법은 미국뿐 아니라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 이른바 지금의 선진복지 국가까지 확대 실시되고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런 우생학의 가장 극악한 폭력은 우생학을 신봉한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로 나타났다.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결함이 있는 자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구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체계적으로 실행된다면 이 일이야말로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일이다. 수백만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 수준도 높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히틀러는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열등한 인간 속아내기’ 및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가장 인간적인 일로 보고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유태인 학살로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이 붙은 멩겔레 등 나치 독일의 우생학 연구 및 정책들을 시행하는 연구자들은 미국의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20세기 초 단종법은 전세계적 흐름이 되었고, 이는 이른바 근대국가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서 일본 또한 단종법을 실시하였다. 일본이 일본민족의 우월함과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국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조선 사람과 아이누족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우생학적 사상을 전파시키고 한센병 환자에게 강제적 불임시술을 시행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에게도 폭력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우생학을 내세워 저질러진 나치 만행이 인류역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우생학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실 1970년대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단종법이 계속되었고, 싱가포르 등에서는 1980년대까지 대학을 졸업한 여성에게는 결혼장려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반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저소득 여성에게는 불임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저가 아파트의 전세 계약금 4천 달러를 보조하는 등 다른 형태의 엘리트주의적 우생학 정책이 여전히 국가 주도로 실현되고 있었다.


개인의 욕망과 우생학

우생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긴 했지만, 사실 6백만 명을 학살한 나치의 충격적인 만행에 의해 더 이상 국가가 우생학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생학의 어두운 그림자는,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유전공학 기술 발달에 힘입어 다시 국가주도가 아닌 자본과 개인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에 들어 임신부의 양수검사를 통해 태아의 장애를 미리 진단하여 선택적 임신중절이 시행되어왔고, 양수검사 시의 실수 때문에 장애아의 출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가 고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첨단 유전공학 기술은 장애아의 출산을 막는다는 차원을 넘어 ‘생명’을 설계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생명공학’의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로서 우생사상을 실현하고 있다. ‘커다란 눈, 하얀 피부, 큰 키, 높은 IQ, 살찌지 않는 체

질’ 등 얻고 싶은 형질들을 유전적 설계를 통해 디자인해 출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맞춤아기’ 혹은 ‘슈퍼베이비’의 탄생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미 정자와 난자들은 유전학적 특질, 즉 ‘우월성’과 개인의 기호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 팔려나가고 있고, 임신, 출산과정에서 그러한 기술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품화되어 여성의 몸에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 범람하는 ‘우월’함의 이미지,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얻는 ‘성공’의 가치가 가장 중요시되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빼어난 외모, 지능, 건강, 장수를 가져오는 우월한 형질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그에 부응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결합이다. 즉 열등하거나 문제적인 유전형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우월한 형질을 획득하는 것이 이전처럼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써 생명공학 서비스라는 자본시장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결국 ‘살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못한 생명’을 선별, 배제하고, ‘우월한 생명’과 ‘열등한 생명’을 구별하며, 우생학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획하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을 인간이 조작하고 지배할 수 있는 물질의 영역으로만 보는 기계론적 가치들, 생명에 우열을 매기고 지배, 조작, 배제를 시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고 또 그것에 부응하여 용인하는 지금의 정서들은 핵에너지만큼 위험하고 공포스럽다. 인간의 ‘알지 못함’의 죄를 부인하고 우리 삶에 깃들인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신비, 삶의 신비를 조롱하며, 모든 생명의 가치와 그의 번성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짓밟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의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우생학의 논리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모든 생명은 저마다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현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나치 우생학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절박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서있다. 

시리아 내전이 평범한 가족에게 남긴 것

글 | 김 영 미 (시사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

시리아는 아랍민주화 혁명이 시작된 지 2년 7개월이 되었지만 끝나지 않는 내전 속에 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 세력의 전투 중 화학무기로 인한 무고한 1,700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비롯해 10만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시리아 사태를 두고 수많은 논란이 오고가지만 속수무책인 시리아에서는 오늘날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이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아미라

아미라(32)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남편과 세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살던 평범한 가정주부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가업으로 집 근처에 있는 올리브 농장을 크게 했다. 푸른 올리브 잎사귀만큼 미래는 밝아보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2년 반 전, 시리아 남부 다라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가 점차 북부로 올라오고 정부군의 무자비한 진압이 이어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시리아의 대통령 바시르 알 아사드의 독재정체에 참다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알 아사드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총과 탱크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 후 알 아사드 정부군과 이에 항거하는 시리아 반군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시리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리아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사망한 민간인 숫자만도 10만 명이 넘어간다. 1년 전 아미라의 시아버지도 올리브 농장에서 일하고 귀가하다가 그만 정부군의 포격으로 사망하였다.

비극은 그 뿐이 아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룬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정부군의 민병대인 '알 사바하'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반군들을 색출했다. 남편과 시동생 두 명이 끌려갔다. 다행히 남편은 돌아왔지만 시동생 두 명은 알레포 시내를 가르느 강 한가운데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어머니도 반군과 정부군의 총격전 속에 머리에 총상을 입고 절명했다. 아미라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집뿐 아니라 다른 집들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을 거의 매일 봐야했으니까요. 우리 이웃집은 7식구가 모두 정부군 포격에 한꺼번에 죽었어요."라고 말했다.

인간 방패가 된 아미라의 딸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아미라는 남편마저 잘못될까 봐 피난가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남편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 온 집과 올리브 농장, 그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네 달 전 아미라 집에 정부군 민병대 '알 사바하'가 또 들이닥친 것이다. 마침 남편은 집에 없었고 아미라와 세 아이뿐이었다. 민병대는 집안을 둘러보고 4살짜리 막내 딸을 다짜고짜 번쩍 들고 나갔다. 그리고 아미라네 집 때문에 쇠사슬로 딸을 묶었다. 민병대가 딸을 묶은 이유는 반군들이 민간인, 특히 아기들의 희생이 예상되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없을 것을 유도한 일종의 인간 방패였다.

아미라의 딸 뿐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대부분 끌려 나가 정부군 탱크에 묶이기도 하고 총을 들고 있는 민병대 대열 앞에 줄지어 앉혀 놓아지기도 했다. 동네 엄마들의 통곡

소리와 인간 방패가 된 아기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도시를 뒤덮었다. 민병대 대원이 총을 들고 딸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딸은 엄마를 부르짖는 아버규환이었다. 다행히 해질 무렵 이 무시무시한 아기 인간 방패극이 끝났다. 반군이 공격을 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 정부군 민병대는 아기들을 풀어주었다. 민병대원이 떠나자 아미라는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가 딸 몸에 묶인 쇠사슬을 풀었다. 눈물과 콧물, 땀으로 온몸이 젖은 막내딸은 엄마 품에 안겨도 몸을 떨고 경기를 했다. "아미라는 이제 겨우 4살인데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당신도 나랑 같은 엄마라면 이 심정 이해하시겠어요?"라고 물었다.

난민촌 생활의 시작

이 일이 일어나고 아미라는 남편과 함께 마침내 피난을 가기로 했다. 무작정 터키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알레포시와 터키의 국경 도시까지는 겨우 두 세 시간 거리였다. "남편도 이번에는 아무말 안하고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아이들까지 위험해지니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든 집과 농장을 두고 우리는 터키 국경으로 갔습니다." 아미라가 국경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아미라 가족은 터키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아미라가 여권이 없기 때문이다. 여권을 만들려면 시리아 정부 사무실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전쟁통에 정부 사무실은 문을 열지 않았다. 아미라 가족같은 경우는 많았다. 아미라 가족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곳은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는 알 밥알살라마 난민촌이었다. 그러나 이 난민촌의 생활은 그야말로 처참하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흙먼지, 섭씨 38도가 넘는 날씨와 악취, 그 사이에 있는 하얀 텐트들은 이미 약 8,500명의 시리아 난민들로 꽉 차 있었다. 아무 것도 없는 배당받은 텐트로 세 아이와 아미라 부부는 들어왔다. 그나마 가지고 나온 현금으로 당장 아이들이 쓸 생필품을 구했다. 난민촌에는 가게가 없어 난민들에게 몇 배를 부풀려서 생필품을 파는 터키 장사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난민촌에는 물과 음식이 모자라 아미라의 아이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남편이 또 큰



터키 남부 하타이주 국경지역에서 시리아 어린이들이 난민 대피소로 걸어가 있다. 현재 터키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은 7만 8000여 명에 달한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DB)

돈을 주고 구해온 항생제로 간신히 아이들이 정신을 차린 지 겨우 1주일 되었다고 한다. 아미라는 "나에게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둘 다 최악입니다. 하나는 이곳에서 짐승처럼 난민촌에서 주는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며 버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시리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둘 다 우리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지요. 둘 중 무엇을 골라도 최악입니다. 이것이 시리아 가족들의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아미라 가족은 지금도 난민촌에 있다. 그러나 집을 떠날 때 들고 나온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간다. 시리아로 돌아갈 수도 터키로 갈 수도 없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체다. 얼마 전 화학무기로 1,700여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이 한꺼번에 시리아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두려움이 엄습한다. 아미라는 "시리아의 엄마들은 불행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애들 학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온 식구가 모두 거지가 되었어요. 막내딸은 아직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우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없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시리아 내전이 평범한 시리아 가족들에게 빼앗아간 것은 정치적인 그 무엇도 아닌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리아 부모들은 아이들 얼굴 보기가 괴롭다. 그러나 그들의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공존의 친구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할수록 세계 평화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시리아 아이들을 우리가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길은 요원한 걸까.

저금통 동전 모아서 북한 친구들 돕고 싶어요



청주Y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2000년 3월 9일에 개원하여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보육하고 있다. 원아 정원이 49명인 시설로 YWCA의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여 숲체험활동, 친환경급식 및 체계적 영양관리, 지역사회연계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합회 평화나눔팀에서는 신희정 원장과 인터뷰를 했다.

Q 어린이집에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영유아 시기부터 '나눔'을 생활화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에서부터 평화를 이루어가는 첫 걸음으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어린이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기에 앞서 '나눔'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부나눔파티'를 열어 아이들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준비한 다양한 음식을 친구들과 서로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어린이날에는 북한에 살고 있는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고 아픈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며 북한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며 자연스럽게 모금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북한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Q 모금 운동에 참여한 아이들의 마음과 자세가 궁금합니다.

영유아들은 아직 북한에 대한 개념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 북한어린이돕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각 가정에 보내드린 북한어린이돕기 리플릿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 달여의 모금 기간에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는 식사기도를 할 때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북한어린이돕기운동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행할 때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Q 이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나눔을 실천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WCA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바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결실로 서부어린이집에서는 두 가정에서 매월 3만원씩 CMS로 후원하며 북한어린이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주YWCA 길 위의 평화학교



글 | 이슬이 (YWCA PR기자, 이화여대 사학과 4학년)

'길 위의 평화학교(이하 길평)'는 남북 청소년, 청년,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상호소통과 이해를 통해 한민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YWCA PR(Peace Reporter) 기자단은 서울, 청주, 부산에서 진행되는 '길 위의 평화학교'를 취재하여, 소통과 이해의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는 일을 한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기 위해 9월 14일 '길 위의 평화학교'가 진행되는, 청주YWCA를 찾았다. 청주YWCA는 북한이탈주민여성과 남한여성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을 지원한다. 9월 14일의 행사는 '가정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란 주제로서 여성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요가교육, 건강상식퀴즈를 진행하였다. 여성의 건강을 주제로 하는 '길평' 행사는 서로의 건강에 대한 안부물 묻는 것을 시작되었다. 이후 요가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대부분 요가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지만, 뻗뻗한 몸을 이리저리 늘려보았다. 요가로 몸을 푼 후에는

여성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는 설문지를 짝과 함께 풀었다. 서로의 건강과 자신만의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윗동네', '아랫동네' 여성들은 건강한 여성의 삶을 준비했다. 북한, 남한이란 용어대신 '윗동네', '아랫동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선을 지우려했다. 청주YWCA는 '길평'에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여성과 남한여성 간의 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남한 여성은 서로 짝이 되고, 이름 대신 별칭을 지어 부른다. 토끼, 짱구, 엔젤 등의 친근한 별칭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끌어당겨주었다. '그들과 나'가 아닌 '우리'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인지,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이 곳(청주YWCA)에 오지 않는 날이면 달력을 보며 길 위의 평화학교 오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해주었다. 청주YWCA 길 위의 평화학교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10월 5일에는 서울로 올라와 연극을 관람하고, 서울지역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한어린이돕기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8. 21 - 9. 30 기준)

CMS 기부 (8월 21일~9월 30일)	고세영, 고은희, 광상준, 광지영, 김가혜, 김기동, 김명희, 김병호, 김영자, 김윤환,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송록희, 신인숙, 심명자,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슬이, 이윤숙, 이주영, 이행자, 이혜련, 임강숙, 임진영,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영한, 조은선, 조은영, 진인식, 최수산나,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하은경, 한송이, 한영수, 홍기자, 황정아, 황홍백
개인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등)	구정혜, 오영란, 옥성아, 장승희, 정동신, 최혜실
협력교회	성광교회, 서초신동교회, 한양대학교 여선교회, 흥성행복한감리교회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신우회
회원YWCA, 부속시설	광주YWCA, 대구YWCA, 마산YWCA, 부천YWCA, 수원YWCA, 순천YWCA, 진주YWCA, 충주YWCA
교육 및 모임	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 YWCA 1단계실무자교육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할 때

글 | 배 정 미 (연합회 돌봄과살림팀 부장)

지난 9월 23일부터 SBS에서 '수상한 가정부' 라는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한국YWCA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가정부' 라는 명칭이 가사노동자들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용어로 인식되는 사회추세를 염려하며, 드라마 제목변경과 내용상에서의 사용 자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방송국 드라마국에서는 '수상한 가정부' 가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 계약상 제목 변경이 불가하며, 가족 붕괴와 갈등에 직면한 '위기의 가족' 이 미스터리한 가정부로 인해 회복되어가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9월 23일 첫 회가 방송되었다.

최근 대표적인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가사도우미

장면1. 드라마 '결혼의 여신' (26회 장면)

"아무튼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네...사모님"

(도우미가 서둘러 방바닥에 내평겨쳐진 찻잔 등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에에에~ 꼴갑하고 있네"

(도우미가 시선을 위로 하며 쳐다보자)

"뭘 봐?"

"아, 아닙니다. 사모님!"

(도우미가 방문을 나서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정말, 아랫것들 하는 거하고는 정말..."

장면1은 11%대의 시청률을 보이는 SBS 주말드라마 '결혼의 여신', 장면2는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연극 '가정부 옥희님' 의 한 장면이다.

두 장면에서의 도우미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

장면2. 연극 가정부 옥희님

(매우 뚱뚱하게 생긴 가사도우미가 온몸을 흔들며 춤추고 있는 장면후)

(집주인 남자와 대화하는 도중에)

"별것이 다 나 때문이야, 씨!"

(중략)

(속웃만 입은 두 여자 사이에서)

"○○이다. 이년아~"

(중략)

"아이고, 주인님들 바람 좀 피우지 마세요"

과 천민(노비)이나 중세 봉건사회에서 봉건 영주와 그에 예속된 농노와 같은 관계로 드러난다. 대부분 가사도우미에 대한 호칭은 예외 없이 '아줌마!' 이며, '거뒤희야 하는 아랫것들' 의 인식이 강하다. 여전히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우미들은 거침없는 입담과 거짓말에 능하다는 선입견에도 맞닥뜨릴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돌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잘못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깨닫게 된다.

'좋은 일자리' 로서의 돌봄 노동, 공식·사회화 필요

서두에 언급한 '가정부' 는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식사·청소·세탁·장보기 등의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를 문제로 파악한 이유는 단어 '가정부' 가 갖는 부정적 인식 이전에, 근대 이후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식사·청소·세탁·장보기 등의 노동이 여전히 여성이 하는 일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돌봄노동에서 희망적인 소식은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을 채택해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또한 이를 비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 역시 돌봄노동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즉 산후조리부터, 영유아 보육, 가사, 간병과 같은 돌봄노동의 필요성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으며, 개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의 형식 또한 달라져 점차 '비공식 노동' 보다는 '공식 노동' 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인서비스라는 특수성을 가진 돌봄노동의 안정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 인정을 전제로 한 구인·구직자간의 상호호혜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적정 가격 책정과 도우미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의 수요공급이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관리되는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




(출처 : SBS홈페이지)

서 벨기에 정부가 바우처 방식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침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는 물론 서비스 제공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원했던 전례를 고찰하는 것도 우리나라 돌봄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꾼 공동체는 구인구직 회원 모두 행복한 세상

지난 2010년, 한국YWCA연합회는 구인구직회원 모두 상호호혜의 가치에 의해 운영되는 돌봄공동체 설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돌보미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돌보미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 형성은 물론 서비스 이용회원에게 대해 깊은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교육과정에 넣어 약3년째 교육중이다.

한국YWCA에서 이러한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YWCA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부름 받은 종들의 모임' 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꾼 공동체가 되어야 돌보미와 서비스 이용회원 모두 행복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자 YWCA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을 창조하고 살리시는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일과 직업 중에서도 생명을 돌보는 사람과 가정을 돌보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임을 인식하고, 돌보미를 존중할 때이다. 

가정폭력과 여성의 안전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글 | 이은숙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요즘은 여성상위 시대 아닌가요? 방송예능 프로그램도 ‘시월드’에서 ‘처월드’로 바뀌었잖아요. 가정폭력요? 남자가 어떻게 감히 때려요? 오히려 맞고 살지 않나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개 숙이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데요” 본인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한다고 소개를 하다 보면 상대방 남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그러나 2010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률은 57%이상으로 나오고 있다(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정하여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고 1998년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하고 1999년에는 정부가 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상담소가 설치된 지 15년 동안 13번에 걸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상담소는 가정폭력이 모든 폭력의 근원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로 이어지고 세대로 전수되어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우리사회를 폐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담소의

주장은 늘 ‘가정보호’라는 논리 안에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관대하였던 것 같다. 또한 가부장적인 우리사회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한 진실이었던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월 28일에 정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늦게나마 가정폭력이 모든 폭력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진행해온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종합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8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지역경찰서에서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올해처럼 많이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후에 경찰에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본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123개 경찰서에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초기대응 및 처벌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은 7월말 기

준으로 가해자 검거율이 1만 건을 넘었으며 이 기간 재범률은 지난해 29.1%에서 올해 13.9%로 52.2% 감소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3년 7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에 대한 안전 체감도 조사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은 65.7%, 전문가는 68%가 안전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가정폭력대책의 효과에 대한 체감도 일반국민은 49.9%, 전문가는 61%가 효과 있다고 대답했다(2013년 안전행정부 설문조사).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은 실제적으로 조사 결과처럼 가정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아마 여성의 안전에 대한 체감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우리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려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장 안전한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집에 남아 있고 피해자가 가정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분때문에 지금까지 가해자에 대해 관대하고 범죄로 여기길 꺼려하여 다른 범죄와 다르게 처리해 오고 있다. 그래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당당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집을 탈출하여 짝질방을 전전한다거나 피해자보호시설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보호시설에서도 언제 가해자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가게 될지 몰라 조마조마해 한다. 더구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피해자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해자가 나타나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갈까봐 더욱더 가슴을 졸이며 시설에서 살고 있다. 가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자녀를 끈질기게 찾아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고양 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김모 피해여성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몇 번이나 집을 나와서 쉼터에 있다가 들어간 적이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가해자가 집에서 격리되었다면 김모 피해자는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YWCA는 이때 김모 피해여성 남편의 강력한 처벌을 위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했다. 전국 회원YWCA에서 약 천 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가해자를 집에서 격리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집에 남아있게 하는 가정폭력 접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가정에서 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본다. 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야 한다. 가정폭력을 지금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정보호라는 명분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정에 있게 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를 단호하게 집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가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시설로 현재 전국에 있는 62개 피해자 보호시설을 가해자 교정시설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 대책이 가정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발점이 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YWCA 생명 · 돌봄

한국YWCA연합회는 매주 목요일 국민일보 32면에 YWCA 운동 정신과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9월에는 YWCA 생명 · 돌봄 운동 현장을 다루었다. (정리: 편집실)

방사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월 5일

일본산 수산물 오염에 국민 긴장
정부 '안전 기준치 이하' 홍보
검역도 일본 기준에 의존해 불안

태평양 바다가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되어가고 있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가가 이른바 '방사능 괴담'을 근거 없는 소문으로만 일축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인접국가에서 방사능의 대량 유출이 확인될 경우 발령해야 할 위기경보조차 내지 않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국민이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귀 기울이기보다 거꾸로 일본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

일본수산물 오염이 전국민의 초관심사가 되자 식약처가 검사를 주 2회로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떨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정보와 검역기준을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고, 일본 어디에서 온 것인지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량에 관계없이 수입건당 샘플조사는 부실한 조사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먹거리의 방사능 안전여부를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와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급식 등을 통해 내부 피폭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절박하다.

한국YWCA는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최근 여러 시민단체와 더불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유출 방사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여왔고 방사능에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 YWCA를 비롯한 동부지역 YWCA들은 370Bq/Kg으로, 일본보다 3.7배나 높은 현재의 방사능 안전기준치를 '핵전쟁 방지를 위한 의사회'가 제시한 8Bq/Kg 정도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것과, 모든 식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표시도록 식약처에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서명 활동을 벌였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없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YWCA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또한 방사능과 핵발전소의 위험이 없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양한 돌봄복지 사업

9월 12일

서비스업 증가 등 경제구조 변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갈수록 확대
이젠 보육도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
따라서 양육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보육' 체계로 하루빨리 바뀌야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국가 재편과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제조업의 감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서비스업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족생계 부양자로서 남성의 지위를 약화시

켰으며, 가구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여성을 임금노동자로 간주, 노동시장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돌봄서비스의 주체로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돌봄 책임의 사회화 없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1.22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에 해당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해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국공립 양육시설이나 보육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특히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이 많은 농촌 아동들은 돌봐주는 보호자 한 명 없이 아이 혼자 하루 종일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87년 12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에는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200명 이상의 근로여성을 고용한 산업장에서는 직장탁아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노동부는 공업단지 및 여성근로자 밀집 지역에 시범탁아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민간단체에 이를 맡겨 운영토록 지원하였는데, 한국YWCA는 노동부로부터 1987년부터 1991년까지 14개의 시범탁아소(어린이집 전신)를 위탁받고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 26개의 YWCA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YWCA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지원프로그램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개보수, 농·산·어촌의 영유아보육지원, 다문화가정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습지원과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육 사각지대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보육은 나와 너,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책임이다.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의 존립하기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일부 아동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육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이 개별가정에서 국가사회 책임의 공공보육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보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가 만나는 세상〉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한국 YWCA연합회는 동해Y와 제천Y, 파주Y, 하남Y에서



동해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지원사업으로 돌봄교실인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돌봄 보육 사각 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학습, 체험 활동의 기회를 주는 꿈나무돌봄센터는 아이들에게 뿐 아니라 워킹맘과 맞벌이부부의 육아 불안과 일가정 양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만4~5세의 미취학아동과 그의 형제자매인 초등 3학년 미만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평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전문적 돌봄을 받는다.

6월 24일 개소한 동해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특히 목호향의 침체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 부모님을 대신하여 연로한 조부모들이 돌보는 아동이나 집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난 8월27일 개소식을 가진 하남Y 생명꿈나무돌봄센터도 덕풍동 일대 저소득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가정이 많아 보육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남Y 다문화청소년 공부방에 다니는 익준(가명)이는 부모님의 늦은 퇴근으로 10개월 된 동생을 보느라 독서지도수업을 자주 결석하였는데, 이젠 10개월 동생과 함께 꿈나무센터에 간 이후로는 독서지도수업을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은 물론 맛있는 저녁식사, 학교숙제와 과제물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보육선생님 덕분에 매일 센터에 가는 시간을 기다린다. 

학교공간바꾸기에 이어 꿈의 스토리를 열다

글 | 김수연 (연합회 청년리더십팀 간사)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한국YWCA연합회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우리 학교는 친친 와이파이즌’을 시작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식상하지만 청소년이 우리의 꿈이자 미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갈수록 난폭해지고 폭력적이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마냥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래서 YWCA는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중학교 학생을 목표로 학교폭력예방과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이 서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학급 친구들과 간에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바뀌어간다 아이들이 바뀌어간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6개 회원Y(서울, 수원, 인천, 안산, 포항, 광양)가 협력 중학교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중학교 수, 청소년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이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으며 이 아이들이 자라고 변화해가는 과정에 온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있다.

5월부터는 ‘학교공간바꾸기’를 통해서 학교 공간을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켰다. 공간이 밝아지면 학생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안정감 있게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학교공간바꾸기’는 학교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뜻있는 기업과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상반기에는 공릉중학교(서울), 삼일중학교(수원), 본오중학교(안산), 만수중학교(인천)에서 진행되었고, 오는 10월에는 광영중학교(광양)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사워크숍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구조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중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변화를 강요하는 구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선생님들은 ‘우리 제자에 대해서 잘 알고 소통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을 이루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희망과 상상콘서트’는 학부모를 위한 시간이기도 한데 청소년 문제와 대안을 나누고 부모가 스스로 해결 방안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 콘서트는 자녀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다.



공릉중학교에서 열린 꿈의 스토리 현장



자신의 꿈을 벽화로 그려보는 학교공간바꾸기

이제는 꿈을 향하여

그동안 해오던 친친 와이파이즌의 수많은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꿈의 스토리’다. 청소년들은 상반기에 있었던 ‘학교공간바꾸기’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다.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꿈의 봉사단’을 멘토로 만나 꿈이 실현된 현장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POSCO에서 재직 중인 임직원들로 구성된 ‘꿈의 봉사단’은 사회복지사, 광고 기획자, 심리학자, 청소년지도사, 트리즈전문가, 운동코치, 바리스타, 아쿠아리스트, 방송연출가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멘토의 인생이야기에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청소년 자신도 꿈의 지도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 몇몇 멘티 학생들은 지금 마음일기를 쓰고 있다. 심리학 전공의 멘토가 자신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일기를 권유했다. 스스로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일기를 쓰면서 꿈을 꾸라는 것이었다. 마음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친친 와이파이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친친 와이파이즌이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가는 이슬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 학교공간바꾸기 인터뷰 -

오화순 선생님(공릉중학교)

학교공간바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 건물은 단조롭고 무채색의 그냥 기다란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컬러풀한 세상에 잿빛 교실과 학교 건물들을 보면서, 가장 역동적인 사춘기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학교 건물에 ‘색채’와 ‘스토리’를 입히고 싶었습니다.

학교공간바꾸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변화이며 ‘꿈’을 갖는 것이 밝고 명랑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을 추구하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극의 일환으로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효과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화이팅!

공릉중학교 공간바꾸기 주제를 ‘꿈(진로,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늘어만 가는 얽드려 자는 아이들, 무기력한 아이들, 왕따 시키는 아이들, 자주 어디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들, 게임중독에 빠지는 아이들. 남을 때리는 학생들을 보면서,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그들의 아픔이 느껴져요. 저는 그런 아이들의 아픔을 다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꿈’ 또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가슴을 열고 대화를 원하고 이런 것은 ‘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얀 벽보다는 오며 가며 벽화 그림을 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있는 직업을 보고, 또는 다른 학생들의 ‘꿈’을 보면서 ‘자극’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 자극을 통해 희망을 품을 때 아이들은 세상에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 공간 바꾸기에 ‘색채’와 함께 ‘내용’을 담고 싶습니다.

정의·평화의 길 위의 청년 순례자

글 | 설윤석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총무)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태동기를 돌아보면 청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844년과 1855년부터 시작된 YMCA와 YWCA, 1895년에 시작된 WSCF, 19세기 말 젊은 열기와 뜨거운 신앙심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1910년 에딘버러 대회 등, 기독교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청년들의 활동장이 곧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장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WCC에서 그동안 청년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단적인 예가 청년총대의 비율이다. 지난 9차 포르투 알레그레 총회는 '청년총대 25%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8차 총회의 청년중앙위원 숫자(15%)에 그쳤다. 다만 9차 총회 이후 '에코스'라는 청년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WCC청년국의 자문단 정도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WCC 총회는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 특별히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집단으로 청년, 여성, 장애인, 원주민을 정하고 이들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전대회를 총회 직전에 개최해 오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청년사전대회

1)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이번 총회 주제는 '폭력극복 10년(DOV)'와 '국제에큐

메니칼 평화대회(IEPC)'를 이어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세계교회의 여정을 담는 것이기에, 이번 청년사전대회의 주제 또한 정의와 평화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지역과 세계에서 기독교청년들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들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여기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실업, 기후변화, 이주노동/이주민 등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하고자 **화해(Reconciliation), 생태-정의(Eco-Justice), 이주/민(Migration)**의 세 가지 주제 영역을 다룬다. **'화해 영역'**은, 갈등과 분단의 상황에서 청년들의 위치와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 평화와 화해를 위한 청년들의 기여 등에 대한 논의다. 특히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국의 기독교청년들의 실천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생태-정의 영역'**에서는 세계화와 소비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영역'**에서는 이주/민이 청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요한 청년이슈로 다룬다. 한국에서도 이미 상당수의 집단이 된 이주노동자 혹은 이주여성들이 겪는 위협과 문제들을 볼 때 그리고 이들 거의 전부가 청년계층이라는 점에서 정의와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데 한국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프로그램 구성과 참여자


청년사전대회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라고 하면, 청년 참가자들 간의 공동체적 유대 형성, 주제영역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 도출, 한국 상황과 이슈에 대한 이해, 총회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이해와 준비다. 청년사전대회 참석자는 청년 총대 70여명, 청년 스튜어드 150명 그리고 한국참가자 75명 등 총 3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3) 한국청년들의 참여

이번 WCC 총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개최국에 참여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청년사전대회는 다른 사전대회와 달리 한국청년들에게 할애한 시간이 비교적 크다. 한국청년들이 제안하는 의제를 다룰 수 있는 한국세션, 저녁 예배, 에큐메니칼 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는 저녁 식사, 각 나라의 문화와 어우러져 경험하는 한국 문화의 밤으로 청년사전대회 전체일정의 약 25% 정도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총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마당 행사가 진행되는데, 한국청년들은 마당 워크숍과 마당 전시/부대행사에 두 개의 제안서를 제출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마당 워크숍(청년빈곤 극복을 위한 워크숍)만 채택되고, 마당 전시/부대행사(청년빈곤토크쇼)는 WCC청년국에서 주관하는 '청년 공간(Youth Space)'과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스튜어드 프로그램이다. 이는 WCC에서 에큐메니칼 청년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총회 전 교육과 총회 기간 동안 진행되 조, 총회 후 평가 등으로 총회를 전후해 총 3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총회 150명의 스튜어드 중 25명의 한국청년들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사전행사(Pre-assembly event)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청년학생선교연구와 협력 위원회(이하 NCCK청학위)의 주최로 EYCK가 중심이 되어 에큐메니칼 청년학생 연합수련회 <청춘마당>을 2011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4) 청년사전대회와 여성

청년사전대회 '화해, 생태-정의, 이주/민' 각각의 주제 영역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여성과 아주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있다. 내전을 포함하는 갈등·분쟁지역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여성과 아童이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겪는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주노동·이주여성 역시 청년, 그 중에서도 여성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 여겨진다. 또 주제와 이슈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뿐 아니라, 청년사전대회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청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세계기독교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 공동체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가 하나를 이루고 또한 여성과 남성이 하나를 이루어 가야할 것이기에, 한국의 기독교청년 여성들의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각지에서 오는 청년들과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WCC 총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순례(Pilgrimage)'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총회 기간에 있을 행사만이 아니라 총회까지 가는 여정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청년사전대회를 향한 여정으로 WCC 청년국은 페이스북에 주제별 그룹을 개설하여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각각의 이야기를 엮어 나가고, 웹을 이용해 세미나(Webinar)를 진행하여 총회 때 나눌 주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청년사전대회 일정

	28일(월) - 수확	29일(화) - 준비
오전	여는 예배 환영의 시간 총회참여에 대한 안내	아침 예배 성서연구 그룹토의 2 : 에큐메니칼 대화
오후	그룹토의 1 : 에큐메니칼 대화 한국세션	전체발표와 계획 세우기 전략세우기
저녁	한국 저녁기도회 한국 만찬	닫는 예배 한국 / 지역 문화의 밤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과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

지난 7월 25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국제원자력사과평가 척도' 또한 레벨 1에서 레벨 3으로 격상되었다. 일본 앞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바다가 방사능으로 계속 오염되어가고 있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이다.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매뉴얼에 따라 인접국가에서 방사능의 대량 유출이 확인될 경우 발령해야 할 위기경보조차 내지 않았으며, 방사능 피폭 위험이 높은 먹을거리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사능 관련 대응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최우선과제이다.

지난 9월 5일 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에 모인 2백 명의 YWCA대표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보전되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한국YWCA는 전국 52개 YWCA 9만여 명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방사능 물질 유입을 차단하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개하라.

기상청과 원자력기술원, 해양청 등 정부 관련 부처는 방사능 대기물질과 해류 등의 유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정부는 일본 8개현에서 잡히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발표했지만, 홋카이도현과 도쿄도 등 그 밖의 현에서 잡히는 생선에서 더 높은 세슘 오염이 나타나고 있다. 부족한 방사능 검역 장비와 주 2회에 불과한 검역, 검역 대상 물질에 인체에 치명적인 스트론튬과 플라토늄 등 다른 핵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수입물량에 관계없이 수입건당 샘플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 등 일본 정부의 정보와 기준에만 의존하는 수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하나. 식품방사능 오염도 표시제를 실시하라.

국내 유통 식품 방사능 정보, 특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모든 식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하나.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의사회'가 제시한 8Bq/Kg 수준 이하로 하향조정하라.

방사능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며, 먹을거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체에 쌓일 경우 여러 가지의 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히로시마와 체르노빌에서 증명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방사능 기준치는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수치를 표현한 것이 아닌 관리 기준치이다. 국민의 건강,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사능 기준치를 최대한 낮게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YWCA의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과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후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9월 23일
(사)한국YWCA연합회 산하 52개 YWCA 대표 일동

전주YWCA 장애인 선생 가난한 자의 천사

글 | 김은진 (전주YWCA 홍보출판부 부장)



장애인 선생은 1909년 9월 황해도 황주읍에서 방중일 씨의 장녀로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했다. 방 선생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1926년 3월 개성 호수여자고등보통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전주 기전여학교로 발령을 받아 재직하게 되었다.

장애인 선생은 전주서문밖교회 배은희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인연으로 전주로 온 후로 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 지도를 받았다. 방 선생은 주일 오전에는 완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서문밖교회에서 개척한 유년주일학교를 지도했다. 밤에는 기전여학교 기숙사생들을 인솔하여 신앙 지도를 받게 했다. 방 선생은 1926년 4월부터 3년을 근무한 뒤 모교인 황주 양성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그러자 서문밖교회 1천여 명의 교인이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다. 장애인은 “전주에 와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렇듯 눈물로 아쉬워하니 두렵기 짝이 없다”면서 다시 돌아와 성심을 다해 봉사할 결심을 했다. 그의 바람대로 2년 뒤인 1931년 9월부터 다시 전주 기전여학교에 부임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전주에서 생활했다.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전주YWCA)에서 중진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은 못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며 청순한 자세로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모범이었다. 당시 전주서문교회에는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전주YWCA) 총무로 내려와 있던 이효덕이 시작한 고아원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 지하실 방 한 칸을 빌려 운영되는 열악한 수준이었기에 방 선생은 정식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월급을 모아 기본금을 만들고, 전북노회 소속 교회 순방 호소와 전주시내 8천 호를 방문하여 기금을 모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1931

년 성탄절, 서문교회와 담 하나 사이, 유흥가에 있던 집 한 채를 개조하여 전주고아원을 개원하였다. 고아원이 설립된 후에는 방학이 되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아원을 돌보았다. 그녀는 한 별의 옷으로 살았는데, 초라한 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입으시던 저고리와 바지에 솜을 넣어 만들어 보냈는데 그것마저 어려운 이웃에게 주었다. 또한 방 선생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거리로 나와서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돌보았다. 그 가운데엔 한센병(나병)환자까지 있었다. 장애인은 문둥병을 더럽다 아니하고 그들의 썩어가는 살결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기도하였다. 방 선생은 '기도의 사람', '결인과 병자의 친구', '가난한 자의 천사'와 같은 별명을 얻게 되었다. 방 선생은 1933년 6월 30일 방학식을 마치고 고향인 황주에 갔다.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친척, 친지 전도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고향 교회의 여름성경학교 인도에 열성을 쏟다가 몸져눕고 말았다. 개학날이 다가오자 전주 학교로 일단 복귀하였으나 곧 예수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세는 더욱 위중해져 9월 23일 24세를 일기로 세상을 아깝게 떠났다. 생전에 그의 사랑의 실천에 감화를 받은 모든 이들이 그녀를 애도하며 소복 차림의 긴 장례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장애인 선생은 세상에서 버려진 고아와 결인들을 돌보며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 성자였다. 전주YWCA의 삶과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이제 불씨를 넘겨받았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을 장애인 선생님이 혼신으로 여기까지 가져왔으니 이제 그 불씨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도 역시 혼신을 다하여 이 불씨를 살리고 전달할 것이다' YWCA

연합회 소식

9월 월례아침기도회



9월 월례아침기도회가 9월 2일 오전 7시 30분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생명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장상목사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YWCA 생명운동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49명이 참석하였다.

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



2013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가 9월 5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2014~2015년도 한국YWCA 정책을 채택하고 중평YWCA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연합회 직무대표 29명, 회원Y 대표 111명, 연합회 실무자 19명, 총 159명이 참석했다.(자세한 내용 P.6~)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 촉구 캠페인 및 서명운동

연합회는 9월 2일 연합회 회관 입구에서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 촉구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펼쳤다.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및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 촉구 및 식품오염도 표시제 및 방사능 안전기준치 하향 조정을 위한 거리



서명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 P. 8~)

YWCA 대정부 성명서 제출

연합회는 9월 23일 '방사능 안전대책 수립과 방사능 오염 먹거리 감시 강화를 촉구하는 한국YWCA 성명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이번 대정부 성명서 제출은 9월 5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 P. 30~)

제2차 YWCA 1단계 실무자 교육



2013년 제2차 YWCA 1단계 실무자교육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YWCA버들캠핑장에서 있었다. 1년 미만의 YWCA 실무자 70여명을 대상으로 YWCA목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YWCA의 운동이해-새벽종소리(이천진 목사), YWCA 이해-역사와 정체성(최만자 연합회 위원), Y운동가로서의 역할과 사명(김은경 연합회 위원), Y지역운동가로서의 비전수립(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을 주제로 한 강의와 선배 활동가와의 만남이 있었다. 이날 YWCA 중점운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제4차 YWCA 생명포럼



제4차 YWCA 생명포럼이 9월 26일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일상의 생명감수성: 나-여성'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주제 강연과 주제 영상 시청으로 이루어졌다. YWCA 생명포럼단 60명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 P. 10~)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워크숍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워크숍이 9월 27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연수 및 특별기획 전 지역순회 전시 논의와 여성인력개발센터 활동 과제 발굴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또한 이내찬 교수(한성대)의 '변화되는 사회의 여성과 일', 정성원 관장(수원시평생학습관)의 '수원시 평생학습관 운영과 실제'를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 대구와 청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례 나눔을 했다. 이날 회원Y 27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및 실무자, 연합회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민들레넷 회계프로그램 활용범위 확장을 위한 실무자협의회

민들레넷 회계프로그램 활용범위 확장을 위한 실무자협의회의 회가 9월 24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차기버전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기획협의, 연말결산에 대한 개발안 협의를 하고 회계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들레넷 회계프로그램 담당 회원Y 실무자 20명, 연합회 실무자 2명 총 22명이 참석했다.

YWCA어린이집 정책워크숍

10월 1일 연합회 강당에서 YWCA복지사업단 주최로 Y어린이집 정책워크숍이 있었다. '보육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제와 YWCA 어린이집 운영현황, 보육공공성 강화와 부모역할, 보육의 질향상과 보육교사 여건, 보육프로그램 특성과 방향, 보육사업 안내지침 대한 발제로 진행되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40명이 참석하였다.

'밀양765kV 송전탑 막는 YWCA 희망터'



'밀양765kV 송전탑 막는 YWCA 희망터' 캠페인이 10월 2일 연합회 회관 앞에서 열렸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면서, 밀양 주민들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캠페인이다. '핵발전을 위한 희생양, 밀양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밀양관련 영상 상영, 모금활동을 펼쳤다. 모금액은 탈핵희망버스를 통해 밀양에 전달될 예정이다.

동정

- 이은진 광명Y 사무총장 취임 (2013. 9. 2)
- 이지은 연합회 간사 채용 (2013. 9. 9)
- 김찬빈 연합회 간사 사직 (2013. 9. 30)

회원 YWCA 소식

북부

서울YWCA

박서영 간사

티타임의 정책제안



서울Y는 여성정책 UP&I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정책을 편안하게 논의하는 '티타임의 정책제안-희망이 움트다'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1일 첫 시간으로, '서울시 공동육아사업 현황과 제안'을 나누고 논의했다. 10월까지 3회 더 정책제안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YWCA

이하나 간사

Y-틴 평화 통일 워크숍



인천Y는 9월 14일 인천Y 회관에서 Y-틴 평화 통일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고등학생 80여 명이 모여 미래 한국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해 미래 한국의 과제 찾기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앞서 9월 7일 Y-틴 45명은 철원DMZ를 방문했다.

동해YWCA

김정은 간사

제10기 동해여성대학 수료식

동해Y는 9월 9일 제10기 동해여성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동해시와 동해Y가 운영한 제10기 동해여성대학은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 키워드 분석과정'이라는 주제로 6월 25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강의 내용으로 '지역사회와 여성 참여,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현장 학습(안산시), 성인지 정책, 여성친화도시의 이해'를 다루었다. 51명의 수강생 중 42명이 졸업했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동해Y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8월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북평여고와 묵호중학교 앞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본교 재학생, 동해경찰서, JC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동참했다.

속초YWCA

백수미 간사

활동가 연수



속초Y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태백과 영월에서 속초Y 활동가 연수를 진행했다. 속초Y 활동가 15명이 참석하였으며 단합

과 심의 시간을 가졌다.

원주YWCA

김병남 간사

청소년 에코스쿨



원주Y는 9월 14일 청소년 에코스쿨 '몸으로 느끼는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양평 외갓집체험마을에서 친환경 농사법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주Y는 청소년 농촌체험을 통해 환경지킴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살림돌보미' 신규교육

원주Y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원주Y 강당에서 살림돌보미 7차 신규교육을 진행했다. 준·고령 실업자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살림 전문가로 양성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총 7명이 수료하여 9월 중 취업하게 된다.

춘천YWCA

진소정 간사

사랑나눔 바자회

춘천Y 8월 24일 오전 11시부터 M백화점 정문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여러 업체의 협조로 물품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물품(EM제품, 식료품, 의류, 휴대폰, 천연염색제품 등)이 이날 모두 판매 되었고, 1천여 명이 넘는 춘천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경기

부천YWCA

이지원 간사

부천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모니터링

부천Y는 부천시 여성단체와 함께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부천시의회 상임위 방청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기

회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3개의 위원회 중에서 부천Y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상임위를 방청했다. 이날 여러 조례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시민단체의 시정모니터링 활동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독거어르신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부천Y는 9월 13일 독거어르신을 위한 청소년자원봉사단 '함박웃음8'의 9월 활동을 시작했다. 봉사단은 한 달에 한 번 독거어르신을 방문하여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어드리고 있다.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의 교류를 통해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성남YWCA

황정아 간사

살림·산모·아기 돌보미 통합 보수교육



성남Y는 9월 26일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살림·산모·아기 돌보미 통합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돌보미 맞춤 건강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과 운동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어린이 성 인지 감수성 향상 캠프

수원Y는 어린이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성평등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4회 강의를 진행되었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이천 부래미 마을에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캠프를 열었다. 총 30명의 초등학생이 '토마토 수확체험, 물놀이, 공동체 훈련' 등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양성평등 골든벨, 성평등 광고 만들기, 4행시 짓기, 성차이와 성차별 이해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앞으로 '평등한 나의 미래를 위한 진로 특강'과 성 인지 관련 연극 관람을 할 예정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추석 나눔 행사

수원Y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9월 13일 이용 어르신 50여명과 함께 '정겨운 추석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추석의 정을 전하고자 점심 식사와 함께 명절물품을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해바라기 자치회'(가사·육아도우미 모임)에서 진행비 일부를 후원하여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한가위 송편 만들기



안산Y는 9월 13일 회원들과 한가위 송편 만들기를 했다.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송편을 만들었다. 또한 수정과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다. 이날 회원 40여명이 참여했다.

부부 힐링캠프

안산Y 여성과 성 상담소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평 힐 하우스에서 부부 여섯 쌍과 함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캠프를 열었다. '행복한 관계의 집짓기'라는 주제로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법, 이해와 수용, 친밀감 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안양YWCA

김희정 간사

안양YWCA 하루차집

안양Y는 9월 10일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공간확장이 전기금 마련을 위한 '안양YWCA 하루차집'을 진행했다. 안양Y 회원들과 안양시민 1천여 명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날 행사 수입금 전액은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전기금으로 사용된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YWCA 숲놀이 교실



의정부Y는 9월부터 11월까지 숲놀이 교실을 운영한다. 놀이를 통해 생태환경을 오감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숲놀이 교실은 관찰, 창의력, 신체, 감성, 관계 등의 놀이로 자연과 함께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관내 유치원, 학교 20여 곳의 유·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숲놀이 교실은 참여 유치원의 높은 만족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사진은 지난 6월 양성된 숲놀이 강사들이다.

중부

대전YWCA

강은혜 부장

대전YWCA 큰 장날

대전Y는 9월 12일 오전10시부터 4시까지 대전Y 큰 장날을 열었다. 대전Y회원 및 대전 시민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농 직거래를 통한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등 건강한 먹을거리와 다양한 추석선물 세트, 여성리류, EM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부대행사로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상담 부스와 공예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아동안전지도제작

대전Y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유성구 11개 초등학교(상지초 외 10개교)의 안전지도 제작을 했다. 아동들이 직접 사전교육(범죄예방, 안전지도제작)을 받고, 현장조사를 하여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제작 후 아동들은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번 지도제작에 총 350여명이 참여했다.

세종YWCA

홍진영 팀장

이동봉사활동

세종Y는 세종Y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9월 2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한솔동 중앙공원에서 제3회 이동봉사활동-행복한 동행을 진행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자원봉사단과 지역 기업, 기관, 단체 등이 참석하고 한솔동 주민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했다. 세종Y는 EM홍보와 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알선 및 홍보로 세종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제천YWCA

이경희 간사

충주댐 효나눔 복지센터 재위탁

제천Y는 '충주댐 효나눔 복지센터'를 재위탁 받았다. 이 복지센터는 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에 이어 올해 9월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노후를 돌보고 있다. 또한 매일 평균 200여분의 어르신 점심식사를 무료 배식하고 있다. 제천Y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길 위의 평화학교' 개강

청주Y는 8월 17일 '길 위의 평화학교'를 개강했다. 본 프로그램

램은 통일을 준비하며 남한, 북한(탈북)여성 20명의 만남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매월 2회씩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북한(탈북)여성에게는 남한사회 적응과 또래문화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한여성에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야기와 여행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총 9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충주YWCA

김애영 부장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충주Y는 8월 9일 충주시여성문화회관에서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을 가졌다. 이날 창단식에는 100여명의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2부에서는 합창단원들의 기념 합창을 선보였다.

천안YWCA

이연주 간사

एको 천안천 환경동아리 정기모임

천안Y 에코 천안천 환경동아리는 9월 10일 정기모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코 천안천 환경동아리는 영·유아 단체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모임으로 YWCA 환경운동을 앞장서서 펼치고 있다. 9월 23일에도 추후모임을 갖고 운동 방법과 목적을 구체화시켰다. 에코 천안천 환경동아리와 함께 천안Y 환경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서부

광주YWCA

김해정 간사

Y돌봄 재능기부의 날

광주Y는 9월 7일 살림돌봄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Y돌봄 재능기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개최 예배를 드린 후, 스무 군데



의 조손가정과 한부모(부) 가정에 돌보미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방문하였다. 추석맞이 대청소를 하고 밑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나누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YWCA 박경은 간사

추석맞이 떡 만들기



남원Y '신나는 공부방' 은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만들기를 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천연재료로 아이들이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명절의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다.

살림 · 산모돌보미 교육

남원Y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살림 · 산모돌보미 교육을 실시했다. 살림 돌봄과 산모 돌봄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돌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남원시 여성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마련했다.

전주YWCA 김은진 부장

북한이탈주민 추석명절 '사랑나눔'

전주Y 전북하나센터는 9월 10일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외로움을 달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군산, 남원, 익산, 전주, 정읍, 완주군 180여 가정에 과일과 빵을 전달했다. 본 행사에 전주 안디옥교회, (사)전주시기독교연합봉사단 사회적기업 나눔마켓이 함께 해 더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요일프로그램



전주Y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월 14일 무료 놀토지원사업 '상담아, 놀자!' 를 열었다. '신나게 놀자! 힐링, 원에!!' 를 주제로 가을 꽃바구니 만들기 원예치료를 진행했다. 꽃과 식물을 만져보며 심신의 안정을 높일 수 있었다. 김영희 대표(전주 현플라워스튜디오)가 강사로 나섰으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익산YWCA 정아영 간사

이주여성들과 함께 송편 만들기



익산Y는 9월 13일 익산Y 회관에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송편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전경희 강사(이영자 요리학원)의

'한국의 음식문화와 명절음식' 에 대한 강의에 이어 송편 만들기를 했다. 이주 여성들과 회원들은 여러 빛깔의 송편을 빚으며 정을 나누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주여성 및 회원 3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행사는 익산시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 중 한국음식 문화체험으로 진행되었다.

목포YWCA 곽수현 부장

제14회 이웃 나눔 추석바자회

목포Y는 9월 6일~7일,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목포Y 회관에서 제14회 이웃 나눔 추석바자회를 열었다. 지역 특산물, 친환경농산물, 각종 건어물, 추석선물세트, EM용품, 의류, 사회적기업 희망지원센터의 양재 홈패션 물품들을 판매했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청소년 장학금, 소외계층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북한어린이돕기 등에 사용되며, 수익금 나눔 행사를 10월에 가질 예정이다.

송편 나눔 행사



목포Y는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목포Y 회관에서 송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김애자 회장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 15명, 대학Y, Y-틴 6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송편을 빚었다. 이후 이날 만든 송편과 식혜를 2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순천YWCA 신현아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캠페인

순천Y는 9월 16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캠페인을 했다. 순천시 조례동 술집과 편의점 일대에서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했다.



여수YWCA 박진희 간사

추석 바자회



여수Y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석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는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보내기 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북한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지역 건어물과 농산물, EM제품을 판매했으며 먹거리 장터도 열었다. 여수Y는 '북한어린이돕기' 운동과 같은 생명 살리기 운동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주YWCA 장진우 간사

회원무료강좌



제주Y는 9월 12일 제주Y 강당에서 회원무료강좌 '효소 바로 알고 먹기'를 진행했다. 양재봉 대표이사(제주도 농촌특산단지 영농조합법인)의 강의로 올바른 효소 사용에 대해 알리고 직접 효소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항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

제주Y는 9월 16일 항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항공법 개정안 통과와 항공법 개정을 통한 현행 예고제를 항공요금 사전 허가제로의 전환, 저비용항공사의 본래 취지에 맞는 비용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귀포 YWCA 김지희 간사

'그린코칭스쿨-초록을 배웁니다' 어린이집 환경 수업



서귀포Y는 '그린코칭스쿨-초록을 배웁니다' 환경강사양성과정 수료자인 만 50세 이상의 장년 여성들이 동심어린이집에서 환경 수업을 했다. 총 이틀간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와 천연비누만들기를 했다. 이 교육은 장년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친환경 의식이 심어줄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10월 말까지 서귀포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무료로 환경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

대구 YWCA 김세형 차장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감시단원 발대식

대구Y는 9월 11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청소년들의 이탈 증가에 대응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5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YWCA 90주년 기념사업 '평화음악회'



대구Y는 10월 17일(목) 저녁 7시 30분 수성아트피아 옹지홀에서 대구YWCA 창립 9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조재혁, 박재홍, 베이스 권순동, 소프라노 최윤희, YWCA 홍보대사인 팸페라 가수 임형주와 함께 한다.

부산 YWCA 박지영 간사

신입회원의 날

부산Y는 9월 3일 부산Y 강당에서 '신입회원의 날'을 진행했다. 신입회원을 환영하고 부산Y 운동을 나누는 자리였다. 특히 부산Y 환경운동인 EM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의 후 직접 EM발효액, EM비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 후 생활협동조합도 방문했다.

추석맞이 행사



부산Y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추석맞이 행사를 가졌다. 부산Y 생협은 생활재 판매, 부설어린이집에서는 전통놀이를 해 보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추석선물을 전

달했다.

울산 YWCA 김선양 팀장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캠페인

울산Y는 9월 24일 울산 5개 구·군에서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캠페인을 열었다.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버스·자전거 이용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 YWCA 황혜민 간사

Y-틴 봉사단 도시락 전달

포항Y Y-틴 봉사단은 9월 14일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했다. Y-틴 봉사단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독거어르신을 방문했다.

물가조사와 물가안정 캠페인



포항Y는 9월 5일 추석대비 물가조사를 하고 11일 물가안정 캠페인을 했다. 추석을 맞아 급등하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제 YWCA 김의향 팀장

추석 물가안정 캠페인

거제Y는 9월 16일 거제시와 함께 추석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했다. 업소에서는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서비스를 향상하며 가정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금검절약을 생활화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가격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했다.



김해 YWCA 배정숙 실장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 교육 실시

김해Y는 지역민들을 위해 생활 교육을 실시했다. 9월 9일, 23일에 '금융 생활, 의약품 사용'을 주제로 했다.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심리상담·자녀교육 일일 특강

김해Y 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11일 '교류분석을 통한 심리상담·자녀교육'을 주제로 일일 특강을 실시했다. 김종호 사무총장(한국교류분석협회)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총 52명이 참석했다. 10월 22일에는 최민수 교수(서울기독대학교 상담학)의 '이야기 상담치료의 실제'라는 주제로 일일 특강을 연다.

마산 YWCA 이애라 부장

양성평등 캠퍼스

마산Y는 9월 24일부터 창신대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2회기를 진행한다. 남녀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배려 인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 축제기간에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양성평등 캠퍼스' 프로그램은 1학기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동의 외갓집 방문

마산Y 창원시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갓집 방문'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 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여성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이 후원한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제25주년 창립기념예배



사천Y는 9월 9일 사천Y 제25주년 창립기념예배를 드렸다. 임광호 목사(삼천포성결교회)가 말씀을 전하였으며 사천Y 이사, 실무자들이 활동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양산YWCA 박경하 간사

EM휴공 던지기



양산Y는 9월 4일 'EM휴공 던지기'를 했다. 양산Y 회원, 환경활동가, 성산초 학생 등 60여명이 양산천에서 'EM휴공'을 던졌다. 양산Y는 이날 행사에 앞서 성산초교 4, 5학년 학생들에게 EM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휴공을 2주간 발효시킨 후 양산천에 투척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YWCA 김태진 간사

에너지·기후변화 강사 소모임

진주Y는 지난 6월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아카데미'를 진행한 후 8월부터 '에너지·기후변화 강사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줄임말인 '아지미' 강사단으로 활동하며 기후변화,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연구모임을 갖게 된다.

다문화여성중창단 발족

진주Y는 9월 13일 진주Y 다문화여성중창단을 발족하였다. 안동순 지휘자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12명, 선주민(내국인) 8명이 활동한다. 다문화여성중창단은 10월 4일 진주제일병원을 시작으로 지역 병원 공연, 찾아가는 마을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문화 나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창원YWCA 박소라 간사

제1회 청소년 토론경연대회



창원Y는 8월 17일 창원Y 강당에서 제1회 청소년 토론경연대회를 열었다. 창원Y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토론대회는 중·고·대학부 100여 명의 참가자가 예선을 거쳐 '국가의 정의'란 본선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최인호의 인생

최인호 지음 / 조금희 그림 / 여백



2008년 암이라는 병을 선고받고 고통의 축제를 벌이는 동안 그때그때 마음에 담고 있던 생각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들려주고 있다. 5년간의 투병기와 함께 끝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된 삶의 진실을, 지나온 고통과 재생, 기적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등단 후 45년 넘게 한국문학의 중심에서 있던 저자가 삶의 새로운 길로 들어서 참된 자신을 만나러 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며 저자가 발견한 세계의 질서와 이치를 엿볼 수 있다.

힐링 미술관

최승이 지음 / 포이에마



괴팍한 천재화가 카라바조의 슬픈 다윗에서부터 현대 작가 니키 드 생팔의 생명력 넘치는 '나나'까지, 26점의 탁월한 미술작품을 돋보기 삼아 성경 인물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부와 권력을 가진 아달라는 왜 사이코패스가 되었을까?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였나? 레아와 라헬, 야곱의 삼각관계는 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림 속 주인공, 성경의 문제적 인물들과 함께 나를 찾아나서는 특별한 심리치유 에세이이다.

삶은, 그림

김원숙 지음 / 아트박스



화가 김원숙의 그림 에세이『삶은, 그림』. 이 책은 그림 속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억과 이야기, 일상에서 겪은 소소한 사건들과 그로부터 얻은 작은 깨달음을, 화가로서의 삶과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 등 모두 64편의 글과 120여 점의 그림을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신발을 닦으며 아버지 신발 속에 발을 넣어봤던 기억, 신 살이 되었을 때 이탈리아의 한 교회에서 올린 결혼식, 목을 다친 남편이 고개를 들 수 없어 거울을 통해 함께 달을 구경한 이야기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과장되지 않게 담담한 어조로 펼쳐며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더불어 그림 그리는 일에 대해 저자가 품고 있는 생각과 화가로서의 일상, 그림 주제에 관한 글을 통해 저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곳을 떠나라

황명환 지음 / 섬



『그곳을 떠나라』는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회복을 요구한다. '출애굽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할 사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이 책은 현실에 얽매인 부자유한 상태, 그것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속화로 치달아 피라미드와 제국을 건설한 바로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재현하고 있다.